

12-20 (통권 제 491호)

2012. 6. 8.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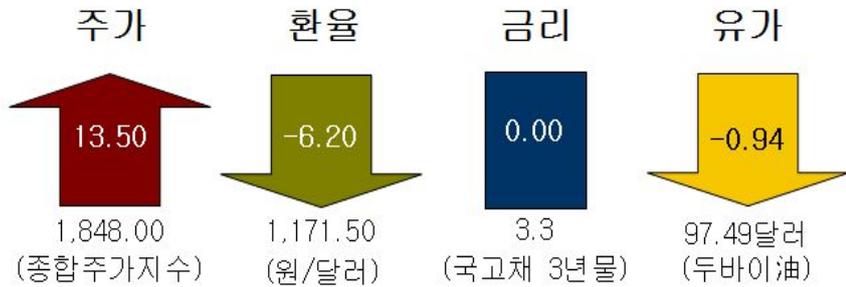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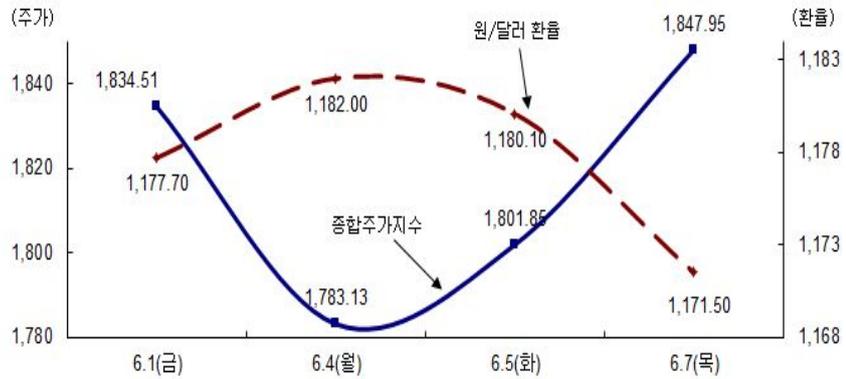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難)
-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6.7)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 :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에코부머(1979~1985년생)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세대로서 2010년 현재 약 510만 명의 거대 인구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현재 만 27~33세로서 본격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통계 측면에서 향후 한국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 세대이다. 에코부머는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부모 세대 성장기 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1인당 GNI 시대에서 부모 세대의 성장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동차, 이동전화, 해외여행 등의 소비를 생활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부머는 부모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대학진학률의 경우 부모세대의 30%대 보다 2.5배 이상 높은 80% 수준이며,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마인드**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에코부머는 **현재 경제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학력 mismatch 현상으로 니트(NEET)족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니트의 원인도 최근 단순히 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의 취업의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최근 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악화되자 그동안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대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늘고 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급증하는 등 에코부머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베이비부머 사회진입 당시에 비해 크게 높아진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에코부머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결혼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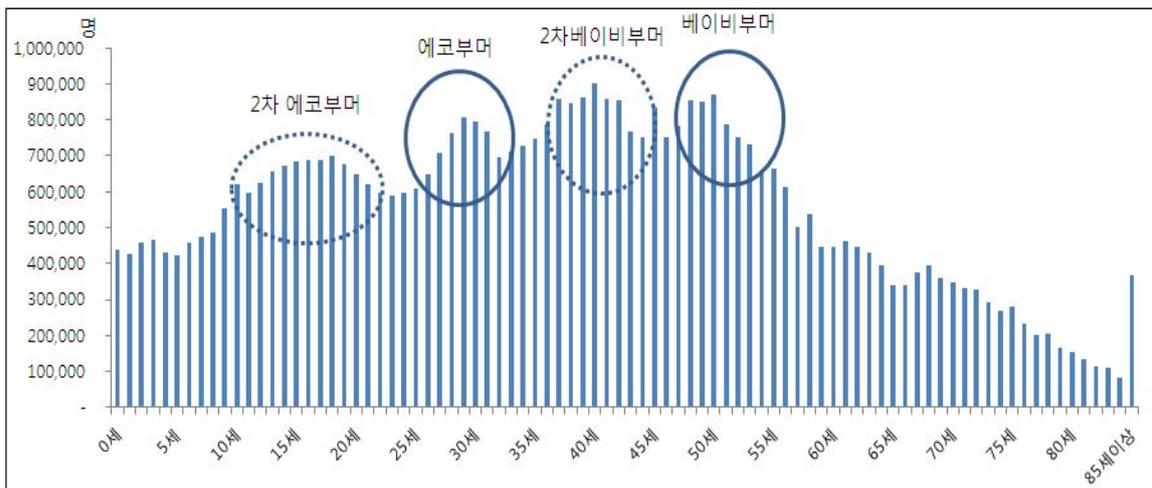
만일 에코부머의 사회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제·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20대 후반의 미혼비율 급증으로 에코부머의 결혼이 지연되고 쉽게 가정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경우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장 활발한 소비단계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주력세대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대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부모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세대마저 궁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코부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그들의 **일자리 마련**이다. 부모 세대와 다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에코부머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경제여건과 이들의 **강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 등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1. 에코부머의 대두

○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이자 또 하나의 인구 거대집단인 에코부머가 현재 본격 사회진입의 연령대에 위치하고 있음

- 에코부머(echoboomers; 1979~1985년생)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로서 베이비부머 보다 인구수에서 작지만 또 하나의 거대 인구 집단)
 - 9년 동안 약 816만 명이 태어난 (1차)베이비부머들은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는 약 695만 명으로, 에코부머는 약 510만 명으로 조사
- 2012년 현재 에코부머는 만 27~33세로서 본격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 이미 사회에 진입한 사람도 있지만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나 졸업 후 몇 년이 경과된 상태
 - 인구통계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력 세대

< 한국의 연령별 인구통계 추이 >



자료 :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 주 : 1) 2차 베이비부머(1968~1976년생)는 1964년 정부 가족계획정책²⁾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다가 고도성장을 시작한 1968년부터 9년 동안 다시 빠르게 증가한 인구집단(약 750만명 출생)³⁾.
- 2) '2차 에코세대'는 1990년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일부 '2차 베이비부머'의 자식세대가 혼재된 상대적으로 거대한 인구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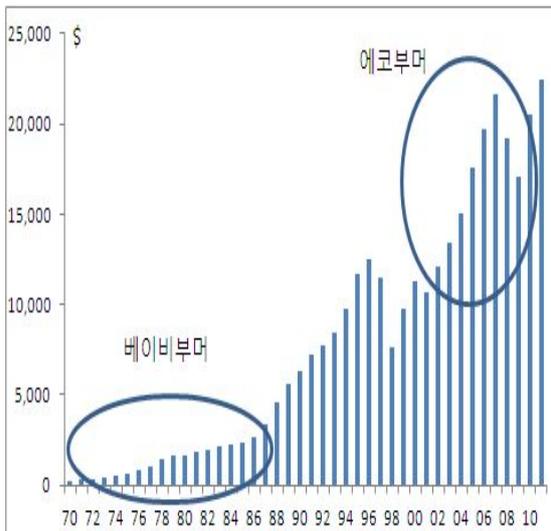
- 1) 에코부머는 미국 프루덴셜 보험회사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봉사활동 실태조사보고서에서 2000년, 즉 Y2000에 주역이 될 세대 즉, 밀레니엄 세대(또는 Y세대)가 베이비붐세대가 낳았다고 해서 에코세대(메아리세대)라 부른 데 기인함.
- 2)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어 피임법 강의, 예비군훈련 정관수술 유도, 불임시술 가정 지원 등 전방위 가족계획운동이 체계적으로 펼쳐짐.
- 3)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1차 베이비부머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한 시기에서 태어나 치열한 입시환경을 뚫고 취업한 세대이나 기본적으로 성장배경은 1차 베이비부머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

2. 베이비부머와 비교한 에코부머

○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부모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 형성

- 에코부머는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디지털환경에 익숙해짐
 - 에코부머 성장기 1인당 GNI는 베이비부머 성장기 당시와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높음
 - 베이비부머들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증가된 소득을 가지고 그들의 성장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동차, 이동전화, 해외여행 등의 소비 생활을 자식세대와 함께 공유
 -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짐
- 에코부머는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해 외국어 구사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으며, 자기 주체성이 강한 것이 특징
 -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에 민감하며, 동시에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는 세대⁴⁾
 - 책임의식과 인내심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

< 1인당 GNI (성장기 당시) >



< 자동차등록대수 및 이동전화가입자수 >

	10가구당 자동차등록대수	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1970	0.1	0.0
1980	0.5	0.07 (1984)
1990	2.7	1.87
2000	8.0	570.10
2007	9.4	897.6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 모바일기기와 SNS를 생활의 일부로 삼고, 온라인을 통해 자신 의견을 개진하고 준거집단 의견도 수시 청취.

○ 에코부머는 부모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모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여건 속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

- 베이비부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식교육 기대가 매우 높았으며, 고비용의 사교육비와 해외 조기유학을 기꺼이 감수
 - 2010년 기준 50대(2010년 베이비부머의 나이대가 48~56세)의 92.6%가 자식 세대에 대한 교육수준을 4년대 대학 이상으로 기대(이중 박사도 15% 수준)
 - 1990년대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고비용의 강남이전을 시도한 장본인들이기도 하며, 자식 교육을 위해 본격 기러기생활을 감수한 세대
- 에코부머는 부모세대의 도움으로 부모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교육환경 속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
 - 베이비부머 초등학교 당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60명 수준이었지만 에코부머의 경우 30명대로 큰 폭 축소
 - 대학진학률도 베이비부머 당시의 30%대 수준에서 2.5배 이상인 80% 수준으로 상승하다 최근에 소폭 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성장 시기에는 생각도 못한 조기어학학습, 해외유학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과 글로벌 마인드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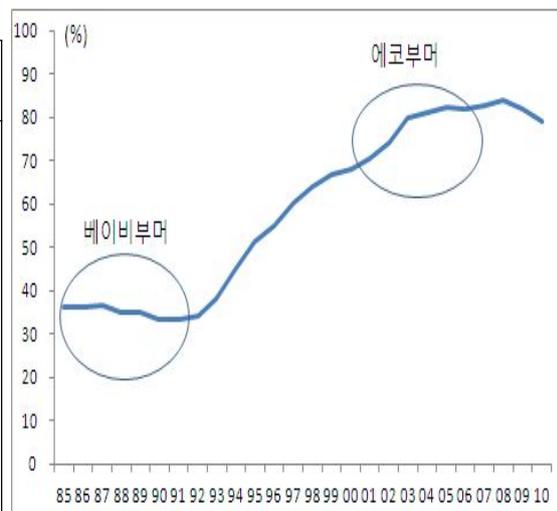
< 교원 1인당 학생 수 >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65	62.4	39.4	30.2
1970	56.9	42.3	29.7
1980	47.5	45.1	33.3
1990	35.6	25.4	24.6
2000	28.7	20.1	19.9
2011	17.3	17.3	14.8

자료 : 통계청 자료 종합.

< 대학 진학률 >



주 : 대학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
자료 : 통계청.

○ **에코부머는 베이비부머에 비해 경제난 속에서 훨씬 어려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음**

- 베이비부머도 나름 취업, 주거, 결혼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큰 무리없이 사회진입에 성공하면서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안착이라면 취업을 하고, 주거를 구하고 결혼을 하여 안정된 경제활동기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
 - 과거의 세대들은 경제 성장기에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취업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으며, 취업 후 곧바로 주거를 마련하고 결혼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 진입을 할 수 있었음
- 에코부머는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주거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보내고 있음
 - 고학력 에코부머는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용난, 주거난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기에 순조롭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에코부머의 교육기간이 20대 후반까지 연장되면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진입기'의 고통을 겪고 있음

<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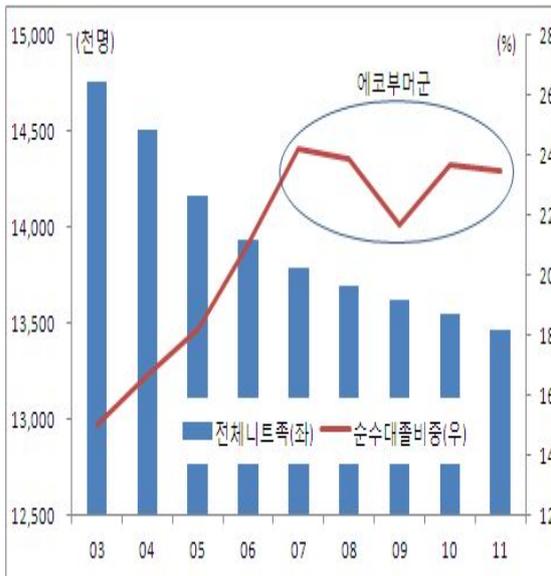
	베이비부머 ('55~'63년생)	에코부머 ('79~'85년생)
2012년 현재 상황	만 58~50세 (은퇴기 진입)	만 27~33세 (경제활동기 진입)
성장기 1인당 GNI	'70년 \$255 → '85년 \$2,355	'95년 \$11,735 → '10년 \$20,562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	56.9명('70년)	28.7명('00년)
대학진학률 (고등→대학)	30%대	70%대
주거비용(표준화전세지수)	'86년 1.0(명목), 1.0(실질)	'11년 6.9(명목), 2.3(실질)
사회진입기의 경제 환경	'80년대의 고도성장기	'10년대의 저성장기 도래
문화적 특징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인터넷, 이동통신)
성향	공동체 의식, 미래지향적	개인주의 성향, 현실주의적
글로벌 자세	국내중심 사고	글로벌 마인드
사회 진입 상황	안착 (취업→주거→결혼)	3대경제난(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3. 에코부머의 3가지 경제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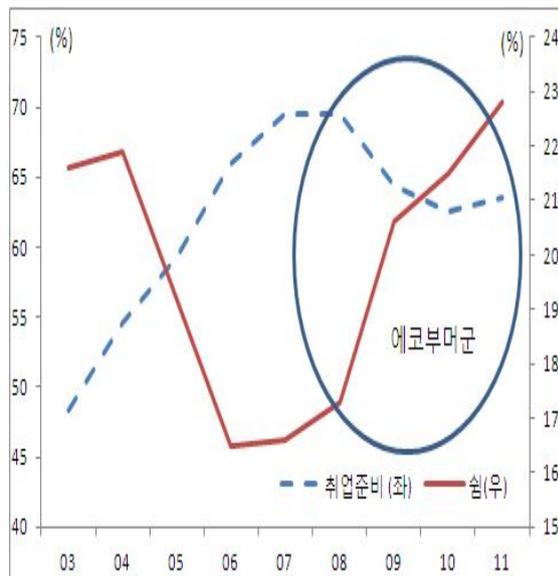
① (취업難) 높은 수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고학력 니트(NEET)족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에코부머들은 취업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교육별 잡(job) 미스매치' 현상에 따른 높아진 체감실업이 고학력 니트족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힘든 일자리에 지원자가 없고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회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비구직 니트족은 감소하지만 에코부머군에 해당하는 대졸자 니트 비중은 오히려 20~25% 수준으로 상승
- 대졸 에코부머 니트의 원인 중 '취업준비'와 '쉽'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이들 취업의 어려움을 시사
 - 대졸 에코부머의 니트의 원인은 진학이나 군입대 대기 등보다도 순수하게 '취업준비' 비중이 가장 높지만 최근 취업의 벽에 막혀 '쉽'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급증(2011년 23% 수준)

< 청년층(15~34세) 중 순수대졸니트 비중 >



< 대졸 니트의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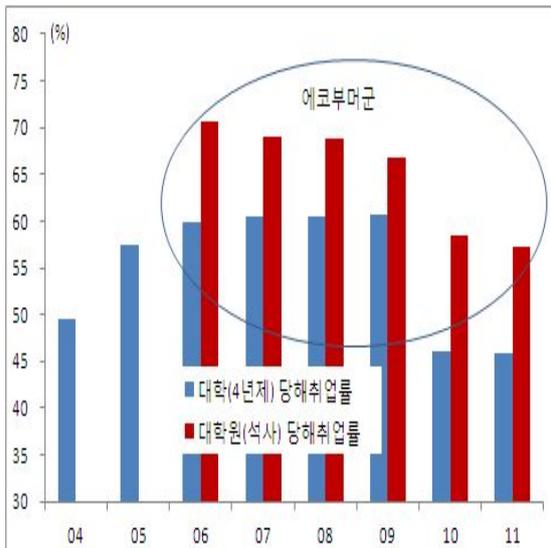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2012.4).

주 : 남녀 평균 26세부터 대학을 졸업(남자의 경우 軍도 고려 한다고 가정한다면 2006년 대졸자의 경우 2012년 현재 33세로 에코부머의 말형'격이 되기 때문에 2006-2012년 니트족의 대부분이 에코부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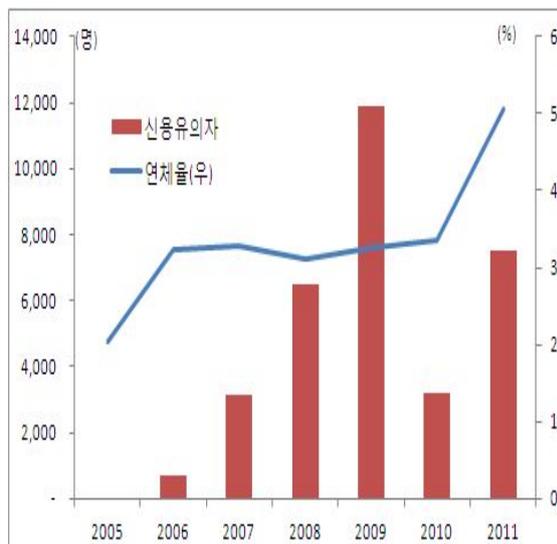
② (신용難) 2010년 이후 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동안 늘어난 학자금대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짐

- 2010년부터 대졸 및 대학원졸의 취업 현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 4년제 대학 취업률이 그래도 60% 수준에 이르렀지만 2010년부터 45% 수준으로, 같은 기간 대학원 석사의 경우도 70% 수준에서 60% 이하로 급락
- 학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연체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에코부머의 신용 건전성이 문제⁵⁾
 - 최근 학자금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 6년 사이 학자금대출 학생수가 2005년 18만 이상에서 2011년에는 136만 명을 상회
 - 취업난 등으로 인해 빠르게 늘어난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11년의 경우 8명 중 1명이 연체자
 - 학자금대출 연체율(6개월 이상 연체)가 5% 이상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2011년 3.2만명을 상회

< 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 >



< 학자금대출 연체율 및 신용유의자 >



자료 : 한국장학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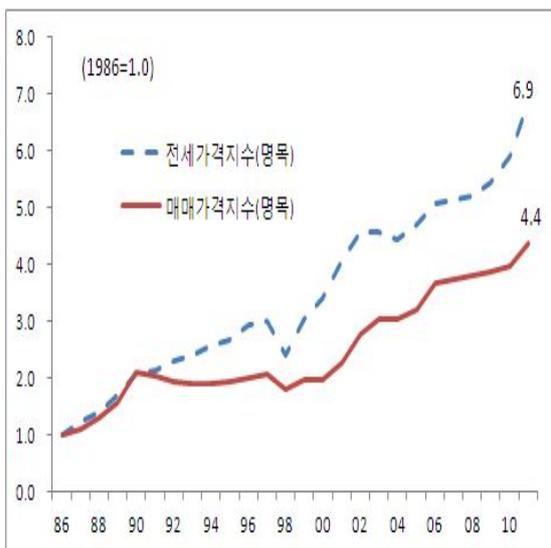
주 : 최근의 신용유의자들은 대학을 졸업한 지 2-3년 되는 세대로서 통상 나이 기준으로 에코부머(27~33세)에 해당됨.

5) 카드사태 직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6월말에 경제활동인구의 약 1/6인 400만 명에 육박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대신 '금융연체자' 또는 '신용유의자'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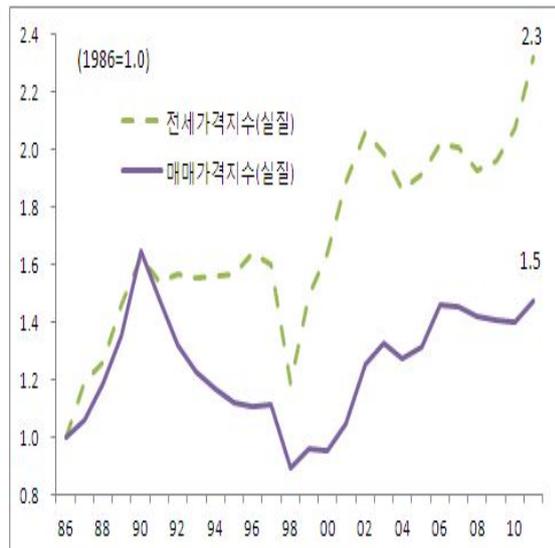
③ (주거難) 높아진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에코부머의 독자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음

- 1980년대 후반 고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가파른 주거비용 증가세가 고도성장이 끝나면서도 지속되고 있음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명목)는 1986년에 비해 4.4배, 전세가격지수(명목)는 6.9배 상승
 -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실질)는 1986년에 비해 1.5배, 전세가격지수는 2.3배 상승 (이는 1986년부터 아파트가격은 소비자물가보다 1.5배, 전세가격은 2.3배 상승함을 의미)
- 주거비용 급증이 에코부머가 독립적인 사회 개체로 나설 수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에코부머의 주거비용을 부모세대의 부채 증가로 대체되는 경향(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11.2.14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
 - 에코부머 남성의 사회진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 전국 아파트매매 및 전세지수(명목) >



< 전국 아파트매매 및 전세지수(실질) >



자료 : KB국민은행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HRI) 가공.

4. 시사점과 정책과제

○ 또 하나의 거대인구 집단인 에코부머의 사회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전반의 경제·사회적 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취업難, 신용難, 주거難 등으로 에코부머의 결혼이 지연되거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이는 향후 국가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임
 - 취업의 어려움, 여성의 경제참여 등으로 인하여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비율이 급격히 상승 (1995년 29.6%에서 2010년 69.3%로 급증)
 - 미혼비율 및 평균 초혼연령 상승 등은 결국 미래 인구감소 추세 가속
- 에코부머의 유연한 사회진입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국가경제력 약화가 예상
 - 전체 인구의 10.6%를 차지하는 에코세대의 사회진입이 실패할 경우 가장 활발한 소비단계에서의 소비 침체로 인하여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주도 세력의 노동경쟁력이 약화
- 사회적으로 베이비부머와 에코부머간 일자리 갈등 등이 심화되는 한편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다른 한편에서는 필사적으로 사회에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
 - 경제적으로 부모세대에 의존(캥거루족)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의 궁핍화가 진전

○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다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한 에코부머의 강점을 활용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새로운 시각으로 이들이 바르게 자리 잡아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
 - 현재 에코부머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
 - 베이비부머의 사회진입 환경과 너무나 다른 환경인 바, 현재의 경제여건과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이 필요

- 에코부머를 둘러싼 외부환경을 분석하고, 그들의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SWOT 분석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외부환경으로 기회요인은 다양한 문화 수용 가능, 한류 등 국내 문화 수출, 정부의 기술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위협요인은 저성장시대(→취업난 가속), 부모세대의 자산가치 하락, 선진국 경제 위기 지속 등을 들 수 있음
 - 내부역량으로 장점은 높은 교육수준과 창의력, 유행과 문화의 민감성,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능력, 인터넷·게임 접근성 등을, 단점은 개인주의 사고와 부모 세대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들 수 있음
- 에코부머들에게 적합한 사회진입 방향을 찾아내어 전략적으로 유연한 사회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노력할 필요
 -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 등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학력위주의 채용방식을 변화하고, 능력 및 자질 위주의 채용이 필요
 - 교육기관에서도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채용된 인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시스템을 도입

< SWOT 분석을 통한 에코세대의 일자리 전략 >

내부역량	강점(S)	약점(W)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교육수준과 창의력 - 글로벌 마인드, 외국어능력 - 인터넷·게임 등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주의 - 부모 세대에 경제적 의지
기회(O)	역량확대(SO)	기회포착(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 수용 사회 - 한류 등 국내 문화 수출 - 기술 중소기업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적극적 활용 ▷ 문화상품 제작과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창조적 기업 활성화 ▷ 기술·문화 벤처기업 육성
위기(T)	선택집중(ST)	약점보완(W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시대→취업난 가속 - 부모세대의 자산가치 하락 - 선진국 경제 위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허브 등 성장가능 분야 국내 집중 육성 ▷ 신흥국 노동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 인내력 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마인드 제고 ▷ 청년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02-2072-6216)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1일	6월 7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46	1.64	0.18%p
	엔/달러	81.19	80.66	77.66	78.38	79.36	0.98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364	1.2569	0.0205\$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119	12,461	342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440	8,640	20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30	3.30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77.7	1,171.5	-6.2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34.5	1,848.0	13.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1일	6월 7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3.27	84.56	1.29\$
	Dubai	88.80	106.75	104.89	98.43	97.49	-0.94\$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68.31	274.01	5.7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3	4.2	3.5	3.6	3.3	3.6	4.0	
	민간소비 (%)	0.0	4.4	2.9	3.0	2.1	1.1	2.3	2.5	
	건설투자 (%)	3.4	-3.7	-11.0	-4.2	-4.0	-2.1	-5.0	2.3	
	설비투자 (%)	-9.8	25.7	10.3	7.7	1.2	-3.3	3.7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3,635	4,664	1,310	1,427	1,412	1,416	5,565	6,344	
	증감률 (%)	(-13.9)	(28.3)	(29.6)	(18.7)	(21.4)	(10.0)	(19.3)	(14.0)	
	수입 (억 \$)	3,231	4,252	1,239	1,343	1,349	1,313	5,244	6,054	
증감률 (%)	(-25.8)	(31.6)	(26.2)	(27.1)	(27.6)	(13.4)	(23.3)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